

저축銀 대출액 한달새 1조 감소... 고금리에 수익성 빨간불

79개 저축은행 대출 총액 116조
고금리에 중저신용자 문턱 못넘어
고신용차주 중심 마케팅 강화
디지털 전환 등 통해 비용절감도

저축은행의 주 수입원인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확장보다는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의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79곳의 대출 총액은 116조4187억원이었다. 이후 11월 115조2238억원, 12월 115조283억원으로 감소했다. 한 달 사이 1조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선 주 수입원인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상돼 기존에 저축은행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량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대출을 찾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연 5~6%에 달하는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통상 연 10% 이상 수준의 금리를 가산해야 하는 중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저축은행은 고신용 차주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고신용 차주 대상

대출량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은 감소하지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용절감을 통해 순이익 감소세만은 피하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이 디지털 전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비용절감의 일환이다. 창구 업무에 투입하는 인건비 줄이기는 물론 예금 및 대출 업무 시 발생하는 종이, 시간 등을 축소해 사업 유지비를 아

끼려야 하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는 물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량이 소폭 감소하면서 유지만 잘하자는 의견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저축은행업권은 기준금리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0%)에 가로막혀 중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져서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현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인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대출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당달 PF대출 또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일부 상가와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탓에 PF대출은 금융업권의 ‘부실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PF의 비

중이 전체 대출량의 10~12% 수준에 그쳐 PF 부실에 의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대출 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 예상이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가계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은 일제히 악화했다.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업계 특성상 규제를 완화해도 쉽게 대출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완화는 리테일 위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에는 분명 희소식이지만 가계대출량을 늘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BNK 인사 마무리... 부산은행장에 방성빈

경남은행장에 예경탁 부행장보
BNK캐피탈 대표에 김성주 내정
4월 1일부터 공식적 임기 시작

차기 BNK부산은행장에 방성빈 BNK금융지주 전 전무가 내정됐다. 경남은행장에는 예경탁 부행장보가, BNK캐피탈 대표는 김성주 현 BNK신용정보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1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방성빈 부산은행장 내정자는 지난 1월 30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후 서류심사 평가,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면접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문성과 경영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방 내정자 1965년생이다. 브니엘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은행 연수원 교수, 경영기획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보), 그룹글로벌부문장(전무) 등을 역임했다.

방 내정자는 내달 중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이어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BNK경남은행의 제15대 은행장에는 예경탁 부행장보가 확정됐다.

예 내정자는 프리젠테이션, 심층면접 등을 거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



방성빈 차기 부산은행장 예경탁 차기 경남은행장 김성주 차기 BNK캐피탈 대표

추위)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주주총회를 거쳐 내달 선임된다.

최종 후보자 2인 중 한 명인 최홍영 은행장은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등 양호한 경영성과에 불구하고 조직의 미래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

예 내정자는 1966년생이다. 밀양고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창원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BNK경남은행에는 1992년 입행해 울지점장, 인사부장, 카드사업부장, 동부영업본부장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여신운영그룹장 겸 여신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예경탁 부행장보에는 오는 4월 1일 제15대 은행장으로서 공식적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예경탁 부행장보에 BNK

경남은행 주요 부문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특히 여신운영그룹장을 맡으며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BNK캐피탈 차기 대표에는 김성주 현 BNK신용정보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거창고등학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부산은행 IB사업본부장, 여신영업본부장을 거친 뒤 BNK금융지주 그룹리스크부문 전무, 그룹글로벌부문 부사장 등을 역임한 뒤 BNK신용정보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내달 자회사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정선 기자

작년 해외 카드 사용액 19% 늘었다

입국제한 완화에 해외여행 증가
내국인 출국자수 전년비 5배 ↑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사용액이 18.9%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2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직불카드의 해외사용금액은 145억4000만달러로 1년전과 비교해 18.9%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쇼핑이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 관련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됐다”면서 “내국인 출국자수가 증가하며 해외 사용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수는 655만명으로 1년전 122만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사용카드장수는 5128만8000장으로 10.4% 늘었고, 장당 카드 사용금액은 283억달러로 7.7%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년전과 비교해 32.6% 증가한 반면 체크카드는 8.6%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취임 100일을 맞은 Sh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오른쪽)이 워크숍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h수협은행

‘취임 100일’ 강신숙, 소통 워크숍 진행

(Sh수협은행장)

전국 영업점 책임자 170여명 초청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취임100일을 맞아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Sh수협은행은 강 행장을 필두로 전국 영업점 책임자들과 소통하는 ‘2023년 사업목표 달성 영업점 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진행했다. 영업점 책임자 170여명을 초청해 2023년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강 행장은 지난 100일간 ▲금융본부(19개) 체계 개편 ▲투자금융(IB)본부·리스크관리그룹 격상 ▲은행장 직속 애자일 조직 ‘미래 혁신추진실’ 신설 ▲비이자수익 창출기반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강 행장은 워크숍에서 ‘네 바퀴론’을 강조했다. 네 바퀴론은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하듯 경영에서도 CEO,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선 기자

기업은행, 취약계층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면제

은행권 최초, 이달 말부터 시행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는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